

# 최적의 암치료법 제시...광주·전남 '왓슨 시대' 열렸다

(인공지능 암환자 치료지원 시스템)

환자 진료기록 맞춰 1500만쪽 의료 정보 활용

전남대·화순전남대병원 22일 '다학제실' 개소

조선대병원 오늘 호남 최초 왓슨 시스템 운영

광주·전남지역에서 대형 병원들이 연이어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이하 왓슨)'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가동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인공지능 '왓슨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분야 중 인공지능을 이용해 암치료를 돕는 IBM사의 '왓슨'은 암 관련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법을 신속하게 제시하는 시스템이다.

호남권에서는 조선대학교병원이 가장 먼저 '왓슨'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25일 왓슨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암센터' 개소식을 갖는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전남대학교병원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왓슨'을 전문적으로

로 운영할 '다학제(多學際) 진료실'을 개소했으며,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윤택림 전남대학교병원장과 김형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 등 의료진이 대거 참여해 '왓슨 다학제 진료실' 현판식에 이어 가동을 위한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전남대병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 정밀의료를 이용한 암 진료와 치료를 위해 지난 6일 왓슨 개발업체인 IBM사와 도입계약을 맺었으며, 왓슨을 활용한 진료 및 치료시스템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인공지능 왓슨을 이용한 진료대상 질환은 현재까지 유방암·폐암·대장암·직장암·난소암·자궁경부암·위암 등 8개 분

이다. 왓슨은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최적화 된 치료 방법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는다. 왓슨은 300개 이상의 의학 학술지, 200개 이상의 의학 교과서를 포함해 1500만쪽에 달하는 의료 정보를 이미 학습한 상태다.

왓슨 도입에 따라 의료진은 체계적 수준의 암 진단 및 치료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방대한 양의 최신 의학정보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의료계의 실명이다.

왓슨을 이용한 치료과정은 ▲의사가 환자의 정형 및 비정형의 진료기록 입력 ▲왓슨이 환자의 상태 요약 ▲환자의 치료 및 관리 방법의 권고안 제시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22일 왓슨 '다학제실'을 개소한 윤택림 전남대학교병원장은 "전남대병원 의료진의 뛰어난 의료역량에 왓슨의 신속·정확한 판단이 가세함에 따라 암 환자 치료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윤택림 전남대학교병원장과 김형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 등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왓슨 다학제 진료실' 개소식을 갖고 성공적인 운영을 다짐했다.

## “뉴욕 암센터 자료 확보...왓슨은 훌륭한 조연자”

조선대병원 박치영 교수

AI 기반 암센터 핵심 기술  
암종별 치료법 다양화 기대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왓슨 포 온콜로지(왓슨)'시스템을 이끌고 있는 박치영(사진) 인공지능기반정밀의료암센터장과 같은 인물이다.

-왓슨은 무엇이며, 도입 배경 및 기대 효과는.

▲왓슨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암환자 치료를 위한 암환자 치료지원시스템이다.

왓슨은 환자와 관련한 각종 나이, 몸무게 등 정보를 입력한 뒤 간단한 옵션을 지정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암센터인 뉴욕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MSKCC)'에서 축적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치료방법과 환자 관리 권고안을 제시해준다.

왓슨이 일종의 조연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의료진들은 왓슨의 대담을 근거로 인공지능기반 정밀의료 암센터 내 '다학제실' 등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왓슨' 등 인공지능 시대에 의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중요한 점은 왓슨이 환자를 진단하는 데 있어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해 준다는 것이다.

왓슨은 인간과 경쟁이 아닌 협력관계를 통해 정확한 치료법을 제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사는 환자와의 직접 대면, 인공지능 왓슨에 대한 질문, 대담도출, 환자와의 정보교류 등 일련의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치료법에 대해 의사와 왓슨의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

▲왓슨과 의사 소견이 충돌한다면, 과연 환자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다. 결론적으로는 대부분 판단이 일치한다. 다른 경우는 동서양의 차이, 사용가능한 약제, 보험기준 등 국가별 차이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또 의견이 다르더라도, 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등을 고민하고 치료법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만큼 오히려 긍정적이다.

-결국 치료법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의사의 몫 아닌가.

▲당연하다. 왓슨에게 흔히 말하는 의사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다학제실' 내 의료진이 최종 치료법을 책임진다.

-왓슨 치료법의 근거인 빅데이터가 동양인이 아닌 서양인에 맞춰져 있다는 비판도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모든 암종의 예후와 치료가 인종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왓슨의 치료법은 현재까진 8개 암분야만 해당되며, 앞으로 다양한 암종에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치료법 제시를 위해선 한국인 및 동양인에 맞는 빅데이터의 축적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신생아실·병원학교 완비...전남대어린이병원 내일 개원

195명 인력 146개 병상 운영...17개 과 전문 서비스

어린이 질환 전문 치료기관인 전남대병원 어린이병원(사진)이 26일 개원한다. 지하 1층, 지상 8층, 146개 병상 규모로 기존 2개 병동(2·6동)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했다.

어린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고위험 신생아 전문 진료체계를 갖췄다. 진료과는 총 17개 과로 구성됐으며 의사 47명, 간호사 113명, 보건직 13명 등 직원은 총 195명이다.

지상 1층에 클리닉, 재활·재노실, 2층에 영상검사실, 발달재활센터, 기능검사실, 3층에 진단검사의학과, 5층에 신생아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 신생아실, 6층에 소아청소년과 병동, 7층 병원학교, 행정실, 8층 연구실, 휴게실 등을 마련했다.

놀이방, 대기실, 카페 등 편의시설도 들어섰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해 의료진,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치료



사, 특수교사가 있는 병원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조기 진단 및 교육 프로그램,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 학대 피해 어린이 보호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윤택림 병원장은 "전남대어린이병원은 어린이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전문병원으로,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양,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락히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10평
- 2012년 신축, 전망 좋음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시세/감정가 12억
- 매매 - 7억 8000만원
- 용자 3억 3000만원 포함

### 비금도, 팟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비금도 안에 있는 단독섬, 무인도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목포에서 50분 (쾌속선)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있음
- 장기투자 가치 최고
- 매 14억 (현금2억+부동산과 교환 가능)

### 나주, ㄷ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급매 - 5200만원 (조정가)

### “급 매”

### 콘도 / 리조트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42억
- 온천지구 내 (주)바리오 화순'에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

주인직매 010-3605-5000